

농어촌公 충주제천단양지사, 농촌 일손돕기 앞장

✎ 이현 기자 | ㉠ 승인 2025.07.06 01:15

농지은행 지원 농가서 열매숙기 구슬땀

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4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.

이날 전승민 지사장과 직원 등 10여 명은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를 찾아 사과 열매숙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.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임직원들이 4일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열매숙기 일손을 돕고 있다.

이 농가는 농지은행사업으로 과수원 매매를 지원받은 농가로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.

지사는 해마다 농촌마을 환경정화와 일손돕기, 재해 복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.

전 지사장은 "농지은행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에 다시 한 번 도움이 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"며 "오늘 흘린 땀이 올 가을 튼실한 과실로 농민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길 바란다"고 말했다./충주=이현 기자



이현 기자 sonarman@naver.com

저작권자 ©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